중구 광복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정희․김진우, 이하 광복동지사협)는 16일‘건강 돌봄 영양식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2024년 광복동지사협의 나누미(美) 특화사업의 일환인 본 사업은 중증질환자 및 치아 문제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10세대를 발굴․선정하여 영양식(뉴케어)을 제공함으로써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하반기 지원은 9월에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위원들은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자체 후원금으로 마련한 영양식(뉴케어)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어려움이나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는 등 말벗도 되어 드려 지역사회의 돌봄 문화를 몸소 실천했다.이정희 광복동장은 “매번 소외된 이웃을 향한 지사협 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